



# 투철한 안전의식과 교육으로 화재를 예방한다

—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

글 이미숙 KFA 계몽홍보팀 과장



KFA는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한 특수건물 중에서 화재위험도가 매우 낮고 안전관리가 우수한 건물에 대하여 「KFA 화재안전 우수건물 인정패」를 건물 입구에 부착하는 『KFA 화재안전 우수건물 인정제도』를 2011년 6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KFA 화재안전 우수건물』로 선정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방문하여 시설운영팀의 정복희 팀장과 김규환 방화관리 담당자와 얘기를 나누었다.

##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국민의 병원, 일산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일산병원은 우리나라

라 최초의 보험자 직영병원으로, 지난 2000년 3월 개원하여 적정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보험의 모델병원이자 의료보험정책을 선도적으로 수행하는 공공의료의 중심병원이다.

일산병원은 우수한 의료진이 만족도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적화된 개인치료와 정확한 암조직 집중치료가 가능한 IMRT LINAC, 암의 조기 발견을 위한 양전자방출 컴퓨터단층촬영기, 3차원 영상혈관 조영촬영장비 등 최첨단 의료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연세대 의료원과의 의료협약 체계를 통해 임상, 교육, 연구 등 선진 의학 모든 분야에서 수준 높은 의료체계를 구축하여 끊임없이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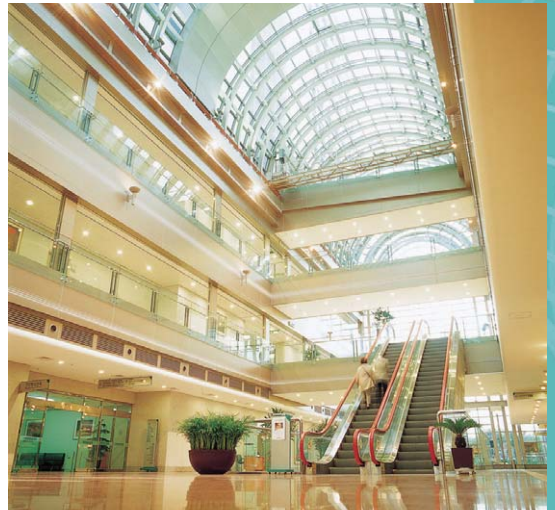
### 감성적 쾌유를 위한 의료문화

일산병원은 환자들의 치료에 그치지 않고 감성적인 자유도 중시한다. 병원에 들어서면 개방형 설계로 탁트인 로비를 접하게 되는데, 이 역시 환자들이 병원에 대한 거부감 없이 기분 좋은 느낌을 가지도록 하는 일산병원의 배려이다. 일산병원은 매월 정기적으로 건강 강좌 및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하고,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근로자 및 소외계층을 위해 사회사업 센터 운영,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 재활지원사업, 국내·외 정기적 의료봉사 등 사회공헌에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 매일이 긴장의 연속

병원 특성상 신생아, 중환자 등 화재가 발생하면 일반건축물에 비해 치명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기에, 이곳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들은 매일매일 긴장의 연속이다.

환자를 비롯한 보호자, 위문객 등 일반 불특정 사용자와 병원 관계자 등 내부 인원



▲ 탁 트인 전망이 일품인 병원 로비





정복희 시설운영팀장



김규현 방화관리 담당자

이 혼재되어 있어 재실자에 대한 인원통제나 상황파악이 용이하지 못해 예상치 않은 곳에서 위험요소가 생겨날 수 있다. 이에 매일 수시로 순찰을 다니며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병원 구조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도 유사 시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병실과 복도 곳곳마다 비상대피안내도를 눈에 잘 띄게 부착하고 있다.

### 실별 특성에 따른 안전조치

분만실은 화재 시 유독연기를 피할 수 있도록 방독면을 항상 비치하고 환기설비를 잘 갖추고 있으며, 혈액투석실은 유사 시 상단의 유리창을 깨서 연기가 외부로 빠져 피난시간을 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신과와 같은 폐쇄병동은 화재 경보가 울리면 자동적으로 잠금장치가 해제되는 시스템을 별도로 설치하여 화재 시 발생할 수 있는 대형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있으며, 비상벨을 함부로 누르지 않도록 별도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고가의 의료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스소화설비를 주로 설치하고 있으며, 오동작 시 직원이 부상을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리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자랑할 점은 지능형 자동탐지설비를 전 구역에 설치함으로써, 화재 시 정확하게 위치를 확인하여 초동대응이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점이다.

### 부서별 특성에 따른 반복교육 실시

일산병원은 피난구에 대해 방화관리에 있어 피난부분을 특히 중요시 여기고 있다. 화재가 발생하면 환자들이 자력으로 피난하기 어려우므로 마지막 한사람까지 피난할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 환경미화원 등 전 직원에 대해 연 36회 이상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

방화관리자가 각 부서마다 직접 방문하여 병실이나 복도 등 장소에 따른 대응방법과 부서 특성에 적합한 대피방법, 소화기기 실습 등 화재진압, 비상연락 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유사 시 핵심역할을 해야 하는 방재센터 근무직원에게 대해서도 매월 반복 대응훈련을 하고 있으며, 긴급상황별 대응 방법을 곳곳에 부착하여 항상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사명감과 열정 가득한 안전담당자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관리를 소홀히 하고 안전의식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그런 면에서 정복희 팀장과 김규환 방화관리 담당자는 어느 안전담당자보다 사명감과 열정이 투철하다. 일산병원 설립 때부터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정 팀장은 병원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 작은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늘 촉각을 세우고 있다. 김규환 방화관리 담당자는 직원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안전교육을 위해 동영상 교육자료 제작 시 직접 출연하여 교육에 활용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지식과 경험을 위해 의용소방대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을 정도이다.

열정적인 안전담당자들을 보면서 ‘일산병원에서 화재 걱정은 안해도 되겠다’는 생각에 미소를 지은 채, 일산병원이 앞으로도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심장으로서 꾸준히 성장하기를 바라며 탐방을 마쳤다. ☺



▲ 일산병원 방재센터

▼ 병원 내부 곳곳에 걸려있는 비상대피안내



▲ 사용방법이 자세히 표기된 채 곳곳에 비치된 소화기